

라면 가격 인상은 ‘기만적 마케팅’



이 정 혁
西村브리핑

얼마전 퇴근 길에 아내가 출타중이어서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먹을 생각에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았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는 발언도 해서 라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궁금하던 차였다.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라면들을 보니 농심 푸팟 품구리큰사발, 오투기 열치즈라면 대컵, 삼양식품 탕글 등 일부 컵라면 등이 2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었다.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신라면과 진라면은 1000원, 너구리는 1150원, 안성탕면과 삼양라면은 각각 950원과 910원, 불닭볶음면은 1250원에 팔리고 있었다. 신라면 더레드 1500원, 신라면 블랙 1900원, 참깨라면과 스낵라면, 킹뚜껑은 1800원이었다. 라면이 처음 나온 1963년 9월 삼양라면 가격이 10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62년만에 10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보면 라면값은 1년 전보다 6.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이였다. 지난 3월 농심이 대표상품 신라면의 출고가를 5% 올린 걸 시작으로 오투기, 팔도 등이 잇따라 라면 가격을 인상한 영향이다. 커피,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번지며 지난달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70%가 넘는 53개 품목이 6개월 전보다 가격이 뛰어 오른 것이다. 과거에도 국제 곡물가나 환율 급등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경우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이례적이다. 계엄부터 탄핵, 대선에 이르는 정국 혼란 시기를 틈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측면이 다분하다. 우리 국민들은 1인당 한해 평균 74.1개의 라면을 먹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듯이 라면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짜장면과 함께 이른바 ‘소울 푸드(Soul Food)’라 할 수 있다. 라면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0분의 2.4에 불과할 정도로 가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먹거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대통령의 발언 속내는 라면 가격을 비유해서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뮴 것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라면 업계의 가격 인상 이유와 시기를 보면 ‘그리드플레이션(Gridflation·기만적 마케팅)’이라고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그리드플레이션은 별다른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기업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는 즉각 제품 가격을 인상하다가 원재료가 하락할 땐 인하를 미루거나 외면했다. 아니면 포장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방법을 쓰곤 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가격 안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기에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긴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식품업계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기업간 담합이나 유통구조 왜곡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ljh@metroseoul.co.kr

새 정부와 대출난민



김지수협
김 정 산
(금융부)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적한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을 거머쥔 것은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일주일이 막 지난 시점, 국정 안정에 힘입어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간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야말로 단비가 따로 없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권 등은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새 정부가 법정최고금리(연 20.0%)를 연 15%로 인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난민’

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불법사금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이란 목소리다. 대출금리는 금융사별 조달금리에 차주별 환급능력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중저신용차주는 이자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자금을 수급한다. 주이용고객은 자금 변동성이 큰 소상공인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기준 주요 카드사 8곳이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적용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7.53%다. 카드론은 2금융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넉넉한 차주가 이용한다. 법정최고금리 연 15%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만3187건의 피해·신고·상

담을 접수했다. 그중 4만7790건은 단순 문의 상담, 1만5397건은 피해 신고 상담이었다.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연간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채권추심은 48.5% 상승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급전을 마련하다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굴레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고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입장이다. 십수년전부터 폭력을 동반한 반사회적 추심 행위는 꾸준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2금융권은 취약차주에게 제도권 대출을 내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한다.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더라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화와 2금융권의 생존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로 ‘연동형 최고금리제’다. 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6월 13일 (음 5월 18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다. 4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 중할 때. 60년생 노력한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본다. 72년생 선행을 하니 열 배로 돌아온다. 84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소

37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을 잊지 마라. 49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나에게 유리. 6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 일을 추진. 73년생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더 반짝인다. 8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호랑이

38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0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62년생 시작됐으니 추진하여 성과를 내도록. 74년생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행동. 86년생 지속성이 부족하니 공부로 채우도록.

 토끼

39년생 남은 노후를 위해 기술을 배워보도록. 51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63년생 숨겨진 실력을 인정받는다. 75년생 가슴 벅찬 행복한 일이 생긴다. 87년생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게 되는 이치.

 양

40년생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52년생 날씨가 따뜻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64년생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도록. 76년생 원하는 바가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88년생 혼자여도 기도하니 외롭지 않다.

 바람

41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공부하는 사람. 53년생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게 된다. 65년생 길이 끊긴 곳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77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데. 89년생 힘든 일이 오히려 되면 풀리기 시작한다.

 말

42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4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6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니 쪽빛보다 더 푸르다. 78년생 사랑인지 망상인지 잘 판단하도록. 90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양

43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 55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67년생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79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만. 91년생 평소애 늘 보던 사람도 오늘은 달라 보인다.

 원숭이

44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5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6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 만남을 주의. 80년생 금전 문제로 배우자와 의견충돌이. 92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약속을 더 잘 지켜야.

 닭

45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 57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명확한 문서로 남겨라. 69년생 좋은 결과는 신용과 기다림에서 나온다. 81년생 무더위가 찾아도 부채는 잘 보관. 93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서라도 달래는 게 순리.

 돼지

46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58년생 주인공은 당신이니 무슨 일든 참여. 70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적다. 82년생 결혼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단계씩. 94년생 서두르지 말고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잠시 미루고.

 돼지

47년생 친척이 방문하니 불청객이다. 5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71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83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95년생 배우자는 나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윤년과 윤달



윤년(閏年)과 윤달에 대해 보통 윤달이 든 해를 윤년이라고 알고 있는 정도일 것이다. 윤년은 과년(年)이라고도 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365일이 아니라 365.2422일이다. 대략 1년은 4년마다 1일씩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윤년이 드는 해에는 2월에 낱짜를 하루 더 추가하는데 이것이 태양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낱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고 우리나라 천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윤달 또는 윤월(閏月) 역시 태음력에서 자연의 흐름과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음력의 달로 원리는 윤년과 비슷하다. 음력은 달이 기준이 되므로 달이 지구를 열두 번 도는 데 걸리는 354일이 태양년의 1년 기준인 약 365.2422일과 비교해서 1년 기준으로 11일이 짧아진다. 이렇게 계속 돌면 음력과 태양년 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태양력과 태음력 사이의 계절 간극이 커져서 계절 현상이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음력과 태양년 간 차이가 한 달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음력에 낱짜를 더 넣어줘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달 모양에 따라 29일을 한 달로 하는 작은달과 30일을 한 달로 하는 큰 달을 번갈아 놓고 12개월 354일을 한 해로 설정한 뒤, 한 달과 같은 길이로 구성된 윤달을 추가해 지구의 태양 공전주기와의 오차를 없애는 태음태양력을 썼다. 이 역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력’이다. 주역과 같은 음양오행서에서는 자연순환법칙을 인간의 삶과 만사에 적용해 피흉취길(避凶取吉)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윤년과 윤달은 지구라는 행성의 운명 해와 달의 간극을 줄이는 표시자이다. 일월성신이 역(歷)이고, 역의 표시자가 해와 달이라는 얘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4	6	1	9	7	5	3
1	6	9	3	2	7	4	8	5
9	7	5	4	8	6	1	2	3
3	1	7	8	9	2	4	6	5
4	9	8	7	6	1	2	5	3
5	6	2	8	9	4	7	1	3
7	8	9	2	5	1	6	4	3
2	4	1	7	6	9	8	3	5
6	5	1	9	4	8	3	2	7

2	6	8	9	1	5	4	7	3
9	9	3	2	7	4	8	1	6
4	7	1	8	6	5	9	2	3
6	8	7	4	9	2	3	1	5
1	5	4	9	2	7	9	6	8
9	9	2	6	8	1	7	4	3
7	2	6	4	8	1	9	5	3
8	9	1	5	6	8	7	2	4
3	1	5	7	9	2	6	8	4